

양천·강서·구로·관악 등 서남권 서울시, 가용공간 발굴 현장조사

2억4700만원 투입... 공간 발굴 신속사업으로 공급한계 발생 현장조사 용역업체 14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억4700만원을 투입해 '잡채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에 나선다.

시는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토지 중심의 신속 사업으로 인해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공급 한계가 발생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과업 범위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시유재산(건물) 630개 소와 그 일대 부지로 총면적은 162.47㎢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 내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와 분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방법 제안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가용공간 구체화 ▲서남권 조사를 토대로 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형화 ▲특화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활용 구상안 제시(5~6곳) ▲조사 결과물 활용 방안 및 관리방법 마련을 목표로 추진 된다.

시는 기존 시유재산(건물)과 그 일대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로 가용공간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도시 조직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의 공간 가치를 향상하는 한편 효율적인 활용·관리 체계를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용역 업체는 시 발주부서와 협

의해 가용공간 발굴 방법론을 수립한다. 그다음 서남권의 토지이용환경(도시계획, 교통환경, 지역자원, 소유관계, 입지조건 포함)을 조사하고 관련 상위계획과 법규 제도, 개발 예정 사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후 서남권 내 시유재산 활용방안과 대상지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활용성을 평가,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이와 함께 용역 업체는 개발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활용 구상안을 제시한다.

지역 정체성을 파악해 도입 가능한 시설을 제안하고 융·복합화 가능 특화 전략을 검토한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용 구상안에 대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적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잡채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0개월 동안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실체없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8곳 적발

건설사 수주기회 박탈등 문제 야기

장점점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들이 공사를 맡아 건설사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

점검 결과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사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시는 서류상으로도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3만원 내고 태양광 빌려주세요"

서울시는 사용자가 한 달에 약 3만원을 내면 태양광발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6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1kW당 20만원, 공동주택은 1kW당 60만원이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7000~3만8000원이며,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이용자는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월평균 288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 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성수에 '서울창업허브' 열고 스타트업 육성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 성장 추구 기업 입주공간 25개실로 확대 심층 대면 평가로 입주 기업 선발

서울시는 감염병·건강·안전·환경과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6일 문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거점공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있으며, 연면적은 지상 2~4층 5492㎡다. 시는 올해 2~6월 기존의 '성수 IT 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해 코워킹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을 18개실에서 25개실로 늘렸다.

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문제 해결 스



서울창업허브 성수 전경. /서울시

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데 기존의 공개모집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임팩트 투자사(사회·환경 등 분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사)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우수 기업을 상시로 추천받은 후 심층 대면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입주 기업을 선발키로 했다.

선발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곱미터당 월 5958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무공간을 쓸 수 있다.

입주 후에는 해외 진출, 초기 투자, 시리즈 A, B 단계 투자유치까지 단계별 민간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성장단계와 투자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옐로우독, HGI, D3주빌리, 소풍벤처스 등 성수동 인근 임팩트 투자사들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함께 지원대상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소재 저소득 고교생에 장학금 지원



총 지원금액 16.7억

서울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위한 '서울희망 고교장학금' 장학금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분기별 68만5000원 이내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총 지원금액은 16억7000만원이다.

중위소득 90% 이내 가정의 고등학

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소재 고교 재학생 또는 자신이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교내 장학 담당 교사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부분 시행에 따라 학교 유형별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부산시, 치의학 제품 개발 과제 선정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시는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디지털 치과의료 제품개발과제 7건, 특허출원 5건, 기술 지도·자문 5건을 선정해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치의학 디지털상용화 기술지원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치과의료 소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전문

가 평가를 거쳐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달부터 ▲환자 맞춤형 블록형 골이식재 제작 ▲3D프린트 모형 전용 교합기 제작 ▲구강 검진부스 ▲유니버설 지그제작 ▲1차원 회전방식을 이용한 정밀 자동스캐닝 ▲임플란트 3D 가상 수술 키오스크 개발 ▲탁상용 전동식 인상재 토출 장치 제품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기술자문)과 디지털



부산시청

치의학 산업으로 전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기술 및 제품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획득을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부산=허원희 기자 bsmorni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6

7월 6일 (월)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9~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 날씨: 연천 19/29, 동두천 19/29, 가평 19/29, 파주 18/28, 서울 21/29, 양평 20/29, 인천 20/26, 수원 21/28, 용인 21/28, 평택 19/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